

펄펄 끓은 광주·전남 37°C 육박

체온보다 높아... 전 지역에 폭염 특보

휴일인 15일 목포를 제외한 광주·전남 전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됐다. 광주와 순천 일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체온과 맞먹는 36.6도까지 치솟았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5일 오후 2시를 기해 전남 여수와 장흥에 내려진 폭염 주의보를 폭염 경보로 대치했다. 신안에는 폭염 주의보를 새로 발효했다. 이로써 광주와 전남 나주·함평·곡성·구례·화순·광양·순천·보성·담양·여수·장흥 등 12곳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다. 목포를 제외한 전남 1개 시·군에도 폭염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광주(과학기술원)·순천(황전면) 36.6도를 최고로 구례·보성(북내면)·곡성(옥과면) 36.3도, 광양 36도, 함평(월야면)·나주 35.9도 등을 기록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온열질환자나 수난 사고도 잇따랐다. 이날 낮 12시 24분께 광주 남구 신장동의 한 논에서는 이모(65) 씨가 농작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다가 탈진해 쓰러져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오후 2시 51분께 전남 구례군 토지

면 피아골 계곡에서는 가족들끼리 물놀이를 하다가 김모(67) 씨가 물에 빠진 채 발견됐다. 김 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기상청은 이날 밤에도 폭염 경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관측될 것으로 예상했다. 열대야 폭염특보가 이어지면 서 전남 밤 광주 동구와 여수, 순천에서 열대야가 관측됐다. 오는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5도, 낮 최고기온은 31~35도로 예상된다. /강상구 기자 rkdtkdrn0913@



“시원한 물대포 맞으며 더위 날려요” 휴일인 15일 오후 광주 북구 월출동 시민의숲 물놀이장을 찾은 시민들이 무더위 속에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이날 광주와 전남 대부분 시군에는 6일째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광주·전남 민선 7기, 지역민 소통 ‘중점’

지자체 슬로건 ‘시민 행복’ 주류... 정책 소통도 강화 생활 민원 청원 눈길... “삶의 질 개선 현장 중심 행정”

민선 7기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소통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나서 관심이다. 민선 6기와 달리 자치단체의 목표인 시·군의 슬로건도 ‘시민’, ‘행복’, ‘자연’이 주를 이뤘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선 7기를 맞아 단행된 조직개편에서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시민소통기획관실을 신설했다. 시민소통과 행정혁신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공동체추진단의 시민소통 기능과 자치행정과의 민원실 기능, 대변인실의 시정 홍보 콘텐츠 제작기능을 통합했다. 시민소통관실은 직소민원팀과 소통기획팀, 온라인소통팀, 영상홍보팀, 종합민

원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된다. 온라인소통팀은 청와대가 운영하는 국민청원제처럼 다양한 시민의 청원을 받아 답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변인실은 영상 홍보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보도 총괄 기능을 강화한다. 전남 여수시는 ‘열린 시민 청원시스템’을 개설해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 20일간 500명 이상의 시민 지지가 있는 청원은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제와 비슷하다. 청원 대상은 생활 불편 사항이나 고충사항, 제도 개선 등이다. 여수시는 시청 홈페이지에 시스템을 준비하고 8월 중부터 본격적으로 청원시스

템을 운영한다. 순천시시는 시민의 정책 제안 사이트인 ‘소통 1번가’를 운영한다. ‘소통 1번가’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자치단체의 행정방향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슬로건도 확 바뀌었다. 민선 7기 광주와 전남 등 27개 시·군·구 가운데 ‘행복’을 슬로건에 넣은 지자체가 9개로 가장 많았다. 보성군은 ‘꿈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보성’을 내세웠고, 강진군은 ‘더불어 행복한 강진’을 강조했다. ‘시민’이나 ‘군민’을 슬로건으로 내건 지자체는 전남에서만 7곳에 달했다. 여수는 민선 6기에 썼던 슬로건인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그대로 이어 받아쓴다. /여수=오승택 기자 ost6002@

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 경영계 ‘보이콧’

노동계 “근로자에 희망적 결과 아니야”... 양측 반발

국내 산업 현장 처음으로 최저 임금이 시간당 8천원을 넘어섰다. 노동계는 당초 인상폭보다 ‘실망스러운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는 한편, 경영계는 ‘부도선언’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

이들은 13일 오전 10시 회의를 시작해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19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했다. 지난 10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안전 부결에 반발해 불참 선언을 한 사용

자위원 9명은 13일 밤 참석 여부에 관한 확답을 달라는 최저임금요청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용자위원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은 근로자 안(8천680원)과 공익 안(8천350원)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근로자안이 6표, 공익안이 8표를 얻었다. /연합뉴스

특별수사단 ‘촛불계엄’ 기무사 문건 수사 착수

계엄문건·세월호 수사팀 구분, 군검사 15명씩 30명 투입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대령·이하 특수단)이 16일부터 수사활동에 공식 착수한다.

해·공군 출신 군 검사와 검찰 수사관 약 30명이 투입된 특수단은 수사기획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사2팀 등으로 구성됐다. 수사기획팀은 공군 중령

군 검사를 포함해 3명이고, 수사총괄은 해군 대령 군 검사가 맡는다. 그 아래 수사1·2팀은 중령 군 검사를 팀장으로 영관급 군 검사 1명, 위관급 군 검사 3~4명, 수사관 7~8명이 참여했다. 총 15명의 군 검사가 투입됐다. 영관급 7명, 위관급 8명이다. 특수단은 14일에 이어 15일 수사활동에 필요한 행정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전남 모 초교 ‘교장갑질’... 교사 전원 연판장

“인격모독 발언·인사교육까지”... 교육청 사실관계 확인

전남의 한 소규모 초등학교의 모든 교사가 1년이 넘게 학교장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폭로해 전남도교육청이 사실확인해 나섰다.

15일 전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전남 모 초등학교 전체 교사 6명이 최근 인수위에 교장의 인권침해 행위 등을 폭로했다.

교사들은 자신의 이름과 서명을 적은 연판장을 통해 지난 1년 반 동안 교장의 행태를 서술했다.

교사들은 A 교장이 결재 과정에서 교사들에게 고향을 지르고 인격 모독 발언, 욕설 등을 했으며 일방적으로 학년 배정 및 업무 분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A 교장은 길게는 1시간 30분까지 교사를 세워두기도 했다.

전 교직원들을 상대로 허리 숙여 인사를 하도록 하는 소위 ‘인사연습’을 시키며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수차례 반복하도록 했다.

교장과 교감의 주차 공간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직급순대로 주차하도록 하기도 했다.

교사들은 “교장이 민주적 학교문화를 훼손하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가 변화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하지 않아 문제가 누적되고 커졌다.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기를 낸다”고 호소했다.

해당 교장은 교장 자격증이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초빙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1년 반 전에 이 학교로 부임했다.

A 교장은 “주차 문제 등 일부는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바꿨다. 잘 해보려고 했는데 선생님들을 상처받게 만들어 미안할 따름”이라며 “개인적으로 미워해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인수위와 전남도교육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조직문화 개선을 역점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내부 갑질·지나친 의견·접대 문화를 근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개인의 갑질도 문제지만 2년마다 공모 교장을 평가하는 과정이 정량 평가 위주이다 보니 일부 교장들이 성과 중심의 요구를 많이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도 교육청에서 정식 조사 후 갑질이 확인되면 A 교장과 교사들을 격리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3732500@

강진만의 상징 알파벳 'A'
강진만의 돌레와 가우도를 잇는 형태

2018 A로의 초대

강진민이 기다립니다.

강진군
GANGJIN CITY